

‘황의조 골-손흥민 도움’ 벤투호, 평가전 멕시코에 2-3 역전패

코로나19 확진, 6명 전역서 이탈

내일 카타르와 한 차례 더 평가전

한국 축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만에 가진 해외 A매치 평가전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1위의 강호 멕시코에 역전패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5일 오전 5시(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비너 노이슈타트의 비너 노이슈타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황의조(보르도)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2-3으로 역전패했다. 멕시코전 상대 전적은 14전 4승2무8패가 됐다.

2018년 6월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1-2 패배를 안겼던 멕시코에 설욕을 다짐했으나 코로나19 변수가 크게 작용했다.

올해 코로나19로 2022 카타르월드컵 지역예선을 비롯한 A매치 일정이 사실상 올 스프링 가운데 대한축구협회에 철저한 지침을 세워 이번 원정을 준비했다.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브라질과 평가전을 가진 후 1년 만에 떠난 해외 원정이었다. 하지만 골키퍼 조현우(울산)를 포함해 권창훈(포라이부르크), 김민환, 이동준(이상 부산), 황인범(루빈 카잔), 나상호(성남)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에 들어갔다. 스태프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상대인 멕시코축구협회, 개최국인 오스트리아축구협회와 회의를 통해 경기를 속행하기로 했지만 계획이 꼬였다. 25명을 선발했지만 양성 반응을 보인 6명을 제외한 19명으로 나섰다. 라인업 구성에 애를 먹었고, 결국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서 실수가 쏟아져 역전패의 빌미를 제공했다.

선제골을 합작한 손흥민(토트넘), 황의조 폼비와 이재성(울산)이 이 최전방에 섰고, K리그 최우수선수(MVP) 손준호(전북)는 주세종(서울), 정우영(알 사드)과 허리를 책임졌다. 이주용(전북), 권경원(상주), 원두재

(울산), 김태환(울산)이 포백에 섰다. 골문은 조현우 대신 구성윤(대구)이 지켰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은 황의조의 선제골을 돕는 등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선 보였다. 구성윤도 무더기 골을 허용하지 전까지 선방쇼를 보였다.

초반 흐름은 멕시코 쪽이었다. 한국은 멕시코의 강한 전방 압박에 밀려 수비진의 후방 빌드업이 원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전반 16분 수비진의 볼 킥핑 실수로 위기를 맞았다. 다행히 구성윤이 페널티박스 안에서 헤스스 코로나의 두 차례 슛을 손과 발로 막았다.

점유율에서 크게 밀렸지만 기회를 잘 살려 균형을 잡았다. 전반 20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황의조가 눈스톱 오른발슛으로 연결해 멕시코의 골망을 흔들었다.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의 전력은 탄탄했다. 실점했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멕시코는 전반 24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이브닝 로사노의 슛으로 골대를 때려 벤투호의 감탄을 사늘하게 했다. 전반 31분에도 한국의 패스 실수로

틈타 역습 기회를 맞았다. 라울 히메네스의 감각적인 침습이 골대를 살짝 넘어갔다. 34분에는 로사노의 슛을 구성윤이 다시 한 번 몸을 날려 선방했다.

전반은 1-0으로 앞서며 마쳤다. 황의조가 후반 15분 역습 기회에서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서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렵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수비 진영에서 찔러준 손흥민의 침투 패스가 돋보였다.

수세에서 역습 위주로 대응했으나 오래 가지 못했다. 특히 초반부터 불안했던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이어졌다. 후반 21분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에게 공을 빼앗겨 실점했다. 로드리게스의 패스를 받은 히메네스가 오른발로 때려 동점골로 연결했다.

집중력이 급격히 흐트러졌다. 동점골을 허용한 지 2분 만에 안투냐에게 역전골을 허용한데 이어 24분에 살세도에게 세 번째 골을 내줬다.

5분 사이에 3골을 실점하며 순식간에 1-3으로 끌려갔다.

벤투 감독은 후반 28분 손준호를 대신해 이강인(발렌시아)을 투입해 변화를 꾀했다. 후반 41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권



축구대표팀 황의조(왼쪽)와 손흥민 (사진 = 대한축구협회 제공)

경원이 만회골을 넣었지만 전세를 뒤집기에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은 17일 오후 10시 카타르와 두 번째 평가전을 갖는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들이 합류할 수 없어 남은 선수들의 체력 회복이 과제

로 떠올랐다. 1948년 런던올림픽 본선에서 A매치 첫 승을 신고한 한국은 카타르를 상대로 A매치 통산 500번째 승리에 도전한다.

뉴스

벤투 감독 “볼 자주 빼앗겨...스스로 어려움 자초”

집중력 저하 연달아 3골 실점 어려운 경기로 이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뚫고 1년 만에 가진 해외 원정 평가전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1위의 강호 멕시코에 역전패한 파울루 벤투 감독이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패인이라고 밝혔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오전 5시(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비너 노이슈타트의 비너 노이슈타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황의조(보르도)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2-3으로 역전패했다.

멕시코전 상대 전적은 14전 4승2무8패가 됐다.

벤투 감독은 경기 후 “좋은 경기였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많은 찬스를 만들었고, 반대로 수비적으로도 많은 찬스를 내줬다”며 “특히 우리가 수비할 때 우리 진영에서 볼을 빼앗긴 경우가 많았다. 또 공격적으로 빌드업할

때 빼앗겼고,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역습으로 나갈 때 소유권을 잃어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력이 가장 좋았던 순간에 집중력 저하로 연달아 3골을 실점한 것이 어려운 경기로 이어졌다. 이후 잘 대응했지만 쉽지 않은 경기를 했다”라고 패인을 분석했다.

김민재(배이징귀안), 김영권(감바 오사카), 박지수(광저우恒大) 등 주전 골 중앙 수비수의 부재로 벤투 감독은 멕시코전에서 후방에 5명의 수비수를 배치한 ‘5백’ 전술을 사용했다. 3백의 중앙 수비로는 권경원(상주)와 함께 미드필더인 정우영(알사드), 원두재(울산)가 짝을 이뤘다. 또 좌우 윙백인 이주용(전북), 김태환(울산)이 자리했다.

벤투 감독은 “수비 라인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다. 중앙 수비뿐만 아니

라 서로 다른 이유로 풀백까지 많은 선수의 변화가 있었다. 수비적으로, 공격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5백 수비를 감행했다. 특히 수비를 두껍게 하면서 동시에 상대 사이드 공격을 차단하려고 5명을 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는 교체 카드 6장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벤투 감독은 3장만 썼다.

그는 “경기 진행을 보고 결정했다. 교체 6장이라고 해서 다 쓸 의무는 없다. 오늘은 경기 진행을 보고 3장만 써도 될 거라 판단했다. 필요한 교체를 3명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훈련한 부분 중 하나가 5백에서 4백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는데, 선수 교체를 통해 경기 중에 그런 전술 변화를 시도했다”라고 덧붙였다.

뉴스

한국전력 장병철 감독 “신영석, 명예 회복 욕심있더라”

“경기를 더해가면서 폭발력 더 커질 것”

국내 최고 센터 신영석을 품은 한국전력 장병철 감독은 이번 트레이드가 팀 전력 상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장 감독은 15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대한항공전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트레이드 후) 선수들 표정이 밝아졌다. 희망을 주려고 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전은 배구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항 트레이드 이후 첫 선을 보이는 자리다.

한국전력은 지난 13일 현대캐피탈로부터 신영석, 황동일, 김지한(상무)을 받고 김명관, 이승준, 2021년 신인 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는 3대3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장 감독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잘 맞았다. 현대캐피탈은 미래를 좀 더 생각했고, 우리는 내년 (군 복무 중인) 서재덕이 복귀하면 레프트 자원이 많아 교통정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주 넘게 고민하다보니 체중이 많이 빠졌다. 쉽지 않았는데 선수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과감하게 트레이드를 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역시 신영석이다. 10년 가까이 주축 국가대표로 뛰면서 지금도 절정의 기량을 발휘하는 신영석이 트레이드 카드에 포함된 것에 대다수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신영석은 올해 현대캐피탈의 주장이었다.

장 감독은 신영석과의 첫 만남에서 “내가 가진 실력만 잘 발휘했으면 좋겠다. 너무 어색해하고, 서운해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영석도 비장한 각오로 다시 뛰겠다고 화답했다. 장 감독은 “영석 이도 명예 회복 욕심이 있는 모양이더라. 잘 해보고 싶더라. 합이 잘 맞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영석은 한국전력 이적으로 과거 우리캐피탈에서 함께 뛰던 세터 김광국과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추게 됐다. 김광국은 신영석보다 사흘 먼저 삼성화재로부터 트레이드 돼 한국전력 유니폼을 입었다.

장 감독은 “첫 날 속공 연습을 하는데 영석이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 둘이 합은 잘 맞을 것 같다. 아직 어수선하지만, 경기를 더 해가면서 폭발력이 더 커질 것”이라



한국전력으로 트레이드 된 신영석. (사진 = 한국배구연맹 제공)

고 내다봤다.

개막 7연패 부진에 빠져있는 한국전력이지만, 장 감독은 트레이드 후 선수단 내 한 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장 감독은 “선수들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은 해보자는 욕구가 생긴 것”이라면서 “박철우도 좋아졌다. 신영석이 센터 블로커 한 명만 잡아줘도 공격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시너지를 기대했다.

서선욱 기자

‘우승 포수’ NC 양의지 vs 두산 박세혁, 대결 ‘눈길’

내일부터 7전4선승제 한국시리즈 시작



왼쪽부터 NC 양의지, 두산 박세혁.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에서 안방마담의 대결에 단연 눈길이 쏠린다.

정규리그 1위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NC와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거쳐 6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에 성공한 두산은 17일부터 고척스카이돔에서 7전4선승제의 한국시리즈를 치른다.

두산 왕조의 주축이었던 양의지(33·NC)는 유니폼을 바꿔입고 친정팀을 상대한다. 양의지가 떠난 후 주전 포수로 자리잡은 박세혁(30)이 두산의 안방을 지킨다.

2010년 두산 주전 포수로 발돋움해 2018년까지 두산의 안방을 지킨 양의지는 두산 왕조를 이끌었다. 그는 두산에서 두 번의 한국시리즈 우승과 4번의 준우승을 경험했다.

4년 전 NC와 두산이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었을 때 양의지는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선보이며 두산의 우승에 앞장섰다. ‘판타스틱’로 불

리던 더스틴 니퍼트, 마이클 보우덴, 장원준, 유희관의 패투를 이끌고, 타율 0.450(20타수 9안타) 5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러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양의지는 2018시즌을 마친 뒤 자유계약선수(FA)가 돼 4년 125억원 을 받고 NC 유니폼을 입었다.

양의지가 두산을 떠난 후 안방을 차지한 것은 박세혁이었다. 양의지에 밀려 백업 포수로 뛰던 박세혁은 주전 자리를 꿰찬 후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

박세혁은 지난해 두산의 통합 우승에 힘을 보태며 ‘우승 포수’라는 타이틀을 다는데 성공했다.

양의지는 현재 자타공인 리그 최고의 포수다. 뛰어난 볼배합과 안정적인 투수 리드를 선보일 뿐 아니라 도루 저지에도 능하다. 올 시즌 타율 0.328 33홈런 124타점을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타격 능력도 갖추고 있다.

두산 타자들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양의지가 어떤 볼배합으로 두산 타자들을 봉쇄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드류 루친스키, 마이크 라이트, 구창모, 송명기 등 이렇지 않은 NC 선발진에서 국내 무대 가을야구를 경험한 투수가 구창모 뿐이라 양의지의 투수 리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양의지가 두산의 ‘발야구’를 얼마나 봉쇄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두산은 올해 정규시즌에 팀 도루 88개로 6위에 머물렀지만, 포스트 시즌 들어서는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에서 결정적인 득점을 발로 만들기도 했다.

양의지는 올 시즌 도루 저지율 42.9%를 기록, 100경기 이상 소화한 포수 중 1위에 올랐다.

NC 타선에도 애런 알테어, 박민우, 이명기, 김성욱 등 발 빠른 타자들이 포진해 있어 박세혁에게도 NC의 도루를 저지하는 것이 숙제다.

박세혁은 올해 정규시즌에 도루 저지율이 19.2%에 불과했다. 그러나 NC전에서는 33.3%의 높은 도루 저지율을 기록했다.

최고 포수 양의지와 한술밥을 먹었던 박세혁의 투수 리드도 안정적인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세혁은 올 시즌 두산의 팀 평균자책점 1위(4.31)를 이끈 포수다.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에서도 안정적이다. 플레이오프 4경기를 치르는 동안 두산 투수진이 내준 점수는 8점 뿐이었다.

김희희 기자

“맨유, 호날두 영입 계획 없다” 英 맨체스터 지역지

고액 연봉자 호날두 데려올 가능성 낮아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친정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복귀설이 제기된 가운데 맨체스터 지역지 현실 가능성이 낮은 무마라고 주장했다.

맨체스터 지역지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15일(한국시간) “맨유는 최근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호날두를 영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전했다.

맨체스터 이브닝뉴스의 맨유 관련 보도는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이 매체는 “최근 각종 매체에서 호날두의 맨유 복귀설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맨유는 호날두를 다시 데려올 계획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맨유 내부 정보원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웃었다. 유벤투스가 고

액 연봉자인 호날두를 처분할 가능성이 크지만, 맨유가 호날두를 재영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맨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다. 작년 대비 수익이 2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맨유는 지난여름 이적시장에서 제이든 산초(도르트문트) 영입에 실패한 바 있다.

뉴스